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의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

박지선*

¹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A Study of Parenting Characteristics of mothers experienced child care teachers

Ji-Sun Park^{1*}

¹Early Childhood Educ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양육지식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영유아 교사를 수행한 경험이 실제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해 예비부모시기에 필요한 양육지식에 관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둘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총 7주에 걸쳐 참여자별로 심층면담 5회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 출신 엄마의 양육과정에서는 대화가 중심이 되고, 아이 방을 유치원 교실과 같이 활동 영역을 준비해주는 환경구성을 중시하였으며, 내 아이는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는 만큼 엄마로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험의 재창조를 통해 양육과정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긍정적인 양육을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framework to provide the necessary caring knowledge in preparental perio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an experience of being a child-care teacher in a field based on child-care knowledge from univers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 in-depth interviews for 7 weeks from July to August,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who used to be child-care teachers put conversation first in the child rearing process, made a room environment similar to the activity space in a kindergarten, and evaluated themselves as mothers with a burden that their children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others. This means that they perform child rearing in a positive way by re-creating their experience and knowing the child rearing process.

Keywords : child care teacher, mother, child caring knowledge, parenting effica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 양육은 미리 연습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기에 누구나 준비 없이 어머니가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에 출산과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이는 ‘어머니 됨’ 즉, 어머니 역할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관계 및 아기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하여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2]을

지연시키고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이와 같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부모가 되거나 부모를 준비하는 예비부모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이다[4]. 과거의 가족 형태에서는 먼저 부모 역할을 해 본 윗세대가

*Corresponding Author : Ji-Sun Park(Mokwon Univ.)

Tel: +82-10-9138-2472 email: lovelyjs01@naver.com

Received December 30, 2015

Accepted March 3, 2016

Revised (1st January 29, 2016, 2nd February 19, 2016, 3rd February 26,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아랫세대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 필요한 부모 역할을 가르쳐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지만, 현대와 같은 핵가족 내에서는 부모 이외에는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줄 존재가 없기에 처음 부모가 된 후 갖는 어려움은 스스로 감당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하는 실정이다[5]. 이에 양육지식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출산 후 입실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지식에 대한 교육이다. 과거 가정에서 출산 후 몸조리를 하던 시기와 달리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 기간동안 소책자나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설명, 인형을 이용한 시점, 인형을 이용하거나 신생아를 데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양육지식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6],[7].

이처럼 교육을 통해 형성된 양육지식은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8],[9]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양육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좀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며[10],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할 수 있다[11]. 이는 양육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양육지식은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녀의 발달을 잘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하면 양육에 대한 자신감 즉 양육 효능감이 높아지며, 융통성 있고 일관된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12],[13]. 양육효능감은 [14]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고, 부모역할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확신감을 의미[15]하며, 자녀의 발달 측면에서 볼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교육 또는 보육을 전공하는 경우, 타 전공과 달리 영유아 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양육지식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대학과정 내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이 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지식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보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같은 학습과정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도 차이와 특성이 있을 것이다. 즉

양육지식을 단기간이 아닌 4년이라는 시간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영유아교사로 지내온 경험은 자녀 양육을 부모가 되어 처음 경험하는 이들과 달리 실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들만의 특성을 보일 것이며,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신념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양육지식은 전문서적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양육효능감은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신념은 단순한 일회성 경험으로는 갖기 어려운 영역이며,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으로 어떠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것인지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한다[16]. 부모의 양육신념은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가진 양육신념에 근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갖는 양육신념은 자녀양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방향은 좌우될 수 있다. 이때 부모가 예비부모역할을 수행한 경험 즉 교사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을 가질 경우, 단순한 지식만으로 형성된 신념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는 어떤 양육신념에 근거하여 그들만의 양육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17]이 제시한 교사의 발달 단계 중 ‘성숙기’에 해당되는 5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가지고 현재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부모 및 예비부모 교육에 필요한 양육지식 및 양육신념에 관한 틀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1.2 연구문제

1.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사를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과정을 통해 나타난 양육특성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또

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영유아기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4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다.

연구자 역시 이들과 같이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7년간 유아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되 이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of research participants

	Age	Major, Level of Education	Careeras Child care teacher	Number of Children	Age of Children
A	33	Childhood Education, Bachelor Degree	2 years	2	6 year, 4 year
B	40	Childhood Education, Master Degree	8 years	2	5 year, 1 year
C	35	Childhood Education, Bachelor Degree	7 years	1	1 year
D	34	Childhood Education, Bachelor Degree	4 years	2	3 year, 2 year
E	33	Childhood Education, Bachelor Degree	6 years	2	2 year, 1 year
F	39	Childhood Education, Master Degree	10 years	2	6 year, 2 year
G	30	Childhood Education, Master Degree	4 years	2	2 year, 1 year

2.2 연구 기간 및 자료수집

연구자는 7월 첫째 주,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질문내용과 타당성, 적절성을 확인한 후, 2015년 7월 둘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총 7주에 걸쳐 참여자별로 심층면담 5회를 실시하였다.

Table 2. Core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University

Core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Child Development
Activities for Child Development
Efficient Teacher's Role

면담 내용은 유아교육전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Table 2]의 내용을 기초로

면담 준거 [Table 3]에 따라 이루어졌다.

Table 3. Criteria and Contents of Interviews

Interview Criteria	Contents
Positive aspects of child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on child re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act on basic thoughts of child rearing Impact on the self in the process of child rearing
Negative aspects of child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on child re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act on the relationship with child in the process of child rearing Impact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in the process of child rearing

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약 60-90분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그날 바로 전사하여 기록하였으며, 전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 사항이나 첨무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역시 저널을 통해 면담 후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참여자들의 그날 상태와 감정적 변화, 표정 등을 기록하여 면담 자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제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내부자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8], 이는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의 반복적 읽기를 통하여 ‘유아교육 전공’과 ‘유아교사 경험’이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크게 나눈 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엄마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영향 그리고 주변 가족과의 관계 속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펜의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과정 및 유아교사 경험이 양육특성으로 드러났으며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용어를 따로 표시한 후 이를 다시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범주화 된 자료는 분석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들을 구분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용어로 명칭을 부여하며 심층코딩의 과정

[18]을 거쳤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의 양육특성

3.1.1 맞춤 상호작용의 실현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대화로 꼽는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면서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 방법을 알 수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가 많다. 특히 연령이 어린 자녀와 나누는 대화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유아교사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영유아기에 있는 자녀에게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부터 방법까지 알고 실현하고 있었다.

허리는 아프지만 대화할 때 꼭 아이의 키와 눈높이에 맞게 나를 낮추는 모든 것,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건 그래도 여러 아이들과 교사 시절 해 왔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5. 7. 15, C와의 면담)

교사시절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생활하며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손인형을 많이 사용해 의인화시켜 대화 유도했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2015. 7. 25, F와의 면담)

자녀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능함을 알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자세부터 갖추어 몸을 낮춘 채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손인형을 사용하여 대화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자녀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녀와의 대화는 긍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를 훈육할 때 그리고 자녀와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었다.

유아교사하면서 배웠던 상호작용 방법이나 훈육방법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대화 나누고 갈등 상황이나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준 것 같아요.

(2015. 8. 14, G와의 면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난관이 훈육인데, 이때 감정적이거나 한 부분만 보고 아이를 나무라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아이의 말을 먼저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부족한 부분을 훈육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반응 할 것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편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2015. 7. 29, A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공통점처럼 나 역시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아이의 발달 부분이 늦어도 조금 한 마음없이 기다릴 수 있었다. 다만 아이가 어느 한 부분 특히 우리 아이는 언어에 대한 재능을 보여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다.

(연구자의 저널, 2015. 8. 7)

대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며,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가는 자녀의 발달 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에 맞는 대화방법을 얼마나 알고 경험해보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의 교육과 교사 경험을 통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대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즉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인과 같은 대화가 아닌 어린 연령의 자녀에게 엄마의 생각을 전하고, 자녀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화구연과 같이 이야기를 통해 시작한다든지, 손인형을 활용해 자녀가 엄마와의 대화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듯이 함께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를 경험한 참여자들과 같이 영유아기에 대한 기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녀와 흥미롭고 효율적인 대화를 양육의 중심에 놓고 실행함으로써 엄마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3.1.2 준비된 환경 속 준비된 양육자

영유아기에는 자극과 감각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점차 자신의 생활범위를 넓혀간다. 그러므로 다양한 탐색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주고 이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구성해주고, 어떤 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시중에 파는 육아서적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달랐다.

집에서 아이 놀잇감도 유아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구성하듯이 환경구성도 해줄 수 있고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유아교사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집에서 아이에게 똑같이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좋았구요.

(2015. 7. 27, G와의 면담)

H의 집에 방문하면 작은 유치원에 들어온 것 같다. 거실에서부터 아이들이 보고 만지고 놀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큰 아이의 방은 그 작은 방을 유치원의 각 영역과 같이 구성하고 다양한 놀이가 스스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 H에게 그저 감탄만이 나올 뿐이다.

(2015. 8. 2, 연구자의 저널)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으로 가정 내의 환경에서부터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행, 평가하는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각 활동에 대한 방법인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환경에 대해 알 수 있었기에 이들은 자녀를 위한 방을 자녀의 발달과 흥미에 맞춰 교육현장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교사 역할을 수행해 왔듯이 자녀에게 1:1 맞춤 교사가 되어 자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유아교사를 하면서 했던 미술활동을 바탕으로 아이와 미술 놀이도 해주고 교구를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교구도 만들 수 있어요. 미술활동도 아이들 발달에 맞춰서 수준을 달리 해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유아교사의 경험을 살려서 발달정도도 맞춰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거품찍기를 아이와 해보았어요. 빨대로 잘 불긴 하지만 아직은 빨대를 물려줬을 때 빠는 본능이 강할 때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거품을 불어주고 아이는 거품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이도 재밌어하고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2015. 8. 5, G와의 면담)

유아교사 때 했던 다양한 활동들 (신체활동, 미술, 동화 등 일과 중 놀이를 포함한 활동들)을 떠올리면서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아이와의 놀이를 어렵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교사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자유롭게 해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독후활동으로 해볼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떠올리거나 하나의 사물로 다양한 놀이를 생각해보게 된거나 하는 사소한 점들이 매순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2015. 7. 22, C와의 면담)

교사시절 자유선택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재교구들을 만들어주어 놀이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엄마인 지금 집에서도 손쉽게 퍼즐이나 케플락기, 조각교구들을 만들어 주어 딸에게 놀이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또 동화를 읽어 줄 때도 목소리 변형과 재미요소들을 추가해서 읽어 주다보니 딸 아이는 동화 읽어주는 시간을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저는 엄마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기뻐요.

(2015. 7. 28, H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교사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재실현함으로써 내 아이를 위한 양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양육에 필요한 지식이나 방법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건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엄마 스스로에게도 엄마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차이는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에 참여자들은 내 나이를 위한 방 꾸미기 역시 자녀 양육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과 활동 방법 인지 등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환경 속에서 준비된 양육자의 모습을 보였다.

3.1.3 '내 아이' 는 달라야 하는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이전 경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주위로부터 아는 만큼 잘해야 한다는 본인 스스로와 주위의 높은 기대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유아교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준에 부족하다 싶으면 불안한 거죠. '올바르게' 라는 틀 안에서 아이를 맞춰 키우는 느낌이 라고 해야 할까요? 내 아이는 달라야 하니까 해서 가르치려는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내 아이는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5. 7. 25, F와의 면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이 알다보니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데.. 저런 것들은 꼭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놀이를 하거나 생활을 하다보면 엄마와 자식이 아닌 선생님과 아이처럼 제가 아이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2015. 7. 28, H와의 면담)

유아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육아가 쉽지 않을 때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들었던 경험은 있어요. 나는 전공자니까 좀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아이에게도 억지로 책을 권하는 등 아이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2015. 8. 6, A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방법을 다른 이들과 달리 인지하고 있기에 그 만큼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내 아이도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은 자녀에게도 전달되기도 하여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당연히 자녀교육을 잘 할거라는 주변인들의 기대가 높아요. 이웃이나 지인들로부터 자녀교육이나 기관 관련 상담을 종종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기도 하고,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해요.

(2015. 7. 30, B와의 면담)

남편이나 가족들 혹은 지인들은 교사경력에 있으니 당연히 육아도 능숙할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가졌을 때 유치원 애들은 잘 가리키면서 왜 우리 아이는 잘 못가리키냐는 듯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는 아이를 더 엄하게 훈내게 되고 후회하기를 반복할 때가 많아요.

(2015. 8. 5, G와의 면담)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모두 ‘하긴 내가 배웠으니 우리보다 잘 알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믿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왠지 나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달라야 하는구나 해서 어른들 앞에서 아이 다룰 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2015. 8. 10, C와의 면담)

일반 타 전공 및 직업과 달리 영유아를 실제 교육한 경험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주위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표현할 수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효율적인 양육을 실행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사’와 ‘엄마’라는 역할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3.1.4 자기평가와 반성의 반복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양질의 양육을 실행하기 위해 과제로 주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양육과정에 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양육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

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놀이를 한 후에는 정리정돈, 밥 먹는 시간 지키기.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식이기에 생기는 돌발행동과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교사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규칙을 지키려다 보니 아이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가장 힘든 거 그리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거를 쪽 나열하고 하나씩 방법을 바꾸어봤지요.

(2015. 7. 29, A와의 면담)

늘 아이들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아이들과 지내게 돼요. 예를 들면 정적인 활동을 했으니 이제 놀이터에 가서 좀 뛰어놀게 해야겠다...오늘은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요. 일종에 이것도 강박인 듯 싶다. 그리고 교사생활을 오래해서인지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친정엄마도 그 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하는 건 내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즐거워야 아이들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투는 노력중이에요.

(2015. 8. 4, F와의 면담)

가끔 아이들 발달에 맞지 않는 활동을 실행하는 거 보면 잠시 고민은 해보지만 그래도 결국 주변의 교육적 자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육아서적은 참고할 뿐 육아서적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역할 내 아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계속 고민해요.

(2015. 8. 8, B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교사 경험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가족 내에서는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 교사로써 접근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주위 특히 함께 양육을 하는 가족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남편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함을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하였고 이 또한 공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이나 함께 육아를 하는 가족들도 훈육할 때 언어적인 부분이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아 속상해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니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 상해하는 것 같아 더 속상하고...그래서 가능하면 말투를 부드럽게 부탁어조로 바꾸었더니 좀 낫더라고요.

(2015. 8. 14, G와의 면담)

제가 훈육하는 방법을 따라하고 제가 남편의 훈육방법을 보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저렇게 했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자신을 가르치나고 자신이 평가받는 거 같다고 기분 나빠해서 천천히 설명을 했더니 그다음엔 저를 믿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2015. 8. 11, D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양육하는 남편과 양육지식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실행하기 위한 특성을 보였다. 자녀 양육은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알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에 양육지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공유할 때 필요한 자세 또한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반성하며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양육과정에서 평가와 반성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양육지식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영유아 교사를 수행한 엄마의 양육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해 부모 및 예비부모 교육에 필요한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 출신 엄마의 양육과정에서는 내 자녀에게 맞추어진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고, 아이 방을 유치원 교실과 같이 활동 영역을 준비해주고 이전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활동을 재실현하는 등 준비된 환경과 준비된 양육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만큼 내 아이는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은 계속 되었으며,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기 평가와 반성이 반복되는 양육특성을 보였다.

4.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과정에서,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의 양육 과정에는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양육특성을 보였다. 상호작용이란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사고변화 혹은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19]. 즉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대화 내용을 통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는 상호작용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양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녀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20]. 또한,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상황과도 연관시켜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21]는 연구와 연결지어 볼 때 이는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과 같이 내 자녀의 발달에 맞추어진 방법에 내용에 따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에서 각 연령의 발달 특성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상호작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볼 때 이는 더욱 의미있는 양육과정임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활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 과정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방을 유치원의 교실과 같이 환경을 구성하고 이 환경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자녀의 양육과정을 ‘경험의 재실현’의 과정으로써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준비된 환경 속에서 준비된 양육자의 특성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에는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최초의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양육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2].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환경과 활동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재실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14]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험’에 해당된다. 교사경험을 통해 다양한 영유아들과의 활동 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긍정적인 교사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양육에 대한 양육신념을 형성하였기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보다는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자녀와도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져 효율적이었기에 긍정적인 자녀 양육과정을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

식을 기초로 먼저 양육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확고히 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여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된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의 경험이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14]의 효능감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설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족 및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는 잦은 기대감은 ‘내 아이’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와 어려움을 나타냈다. 부모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부모-자녀간의 적응을 강화시키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물론 타 전공 부모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 경험을 갖춘 것은 분명하나, 실제 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4]. 이는 ‘엄마’와 ‘교사’의 차이에서 오는 역할혼란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은 자녀에게 수준 이상의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잘못된 양육실제를 수행할 수 있다[22]. 따라서 양육지식을 공유하고 전문성 있는 양육을 위해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하되, 주위의 기대와 시선보다는 내 아이를 위한, 내 아이에게 맞추어진 양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양육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부모교육 또한 필요함을 나타낸다.

넷째,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양육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기를 반복하며 더 나은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양육특성을 보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을 전공했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며 전공한 모든 이들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교수행위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며 조절의 과정을 거친다[24]. 참여자들 역시 ‘자기 반성’을 통해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높이고자 노력한 경험이 자녀양육과정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기평가와 반성이 효율적인 결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참여자들은 교사경험을 통해 질 높은 양육의 방향을 인지하였기 때

문이다. 즉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해야하는지를 알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양육의 나침반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닌 완성된 그림을 이미 알고 한 조각씩 맞추어가는 양육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은 단면적이 아닌 전면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2 결론

이처럼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의 양육과정은 경험의 재실현을 통해 높은 양육효능감을 갖고 있으며, 대학과정과 교사 경험에서 얻은 양육지식과 교육 경험을 통해 자녀의 양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본인만의 양육신념을 형성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양육특성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과 교사 경력이 자녀 양육과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며, 이는 부모로서 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육지식과 이를 실습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자녀 양육을 위해 모두 유아교육을 전공할 수는 없기에 부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효능감,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되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되어야 함을 지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E. J. Baik., M. J. Kang., & S. A. Han, Difficulties in parenting influenced by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hild's tempera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1), 65-78. 2012.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2.50.1.065>
- [2] Mercer, R. T.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 226-232.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547-5069.2004.04042.x>
- [3] H. J. Chae, & S. Kim. Effects of maternal role practice education on becoming a mother.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7(1), 52-63.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1.52>
- [4] J. S. Kim. A narrative study on child-rearing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majors.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and Care*, 12(2),

- 121-145. 2012.
- [5] M. A. Lee. The effects of parenting knowledge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their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 [6] T. I. Kim. Development and test of effectiveness of prenatal role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2, 104-113. 2006.
- [7] H. E. Oh., J. S. Sim., & J. S. Kim. The effects of prenatal education on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8(2), 268-277. 2002.
- [8] Y. S. Song, & Y. J. Kim.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2008.
- [9] Y. H. Yee., & M. Y. Oh.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9(3), 47-62. 2006.
- [10] Grusec, J. E., & Goodnow, J. J.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 of view. Development Psychology, 30, 4-19. 1994.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30.1.4>
- [11] Y. J. Kim., & Y. S. Song,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bout infants and parental stress.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475-493. 2007.
- [12] S. J. Seo. Maternal self-efficacy: a mediation model of child rear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9(3), 47-62. 2004.
- [13] Mondell, S., & Tyler, F. B.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aly with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17, 73-78. 1981.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17.1.73>
- [14] Bandura, A. Self-efficac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1982.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37.2.122>
- [15] K. H. Lee., & S. J. Seo. Effects of infant and mater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3), 87-102. 2009.
- [16] M.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liefs, Expectations and Parenting Intelligence between Fathers and 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3), 311-332. 2013.
DOI: <http://dx.doi.org/10.13049/jofwv.2013.18.3.311>
- [17] Katz, L., G. Developmet of stage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p50. 1972.
DOI: <http://dx.doi.org/10.1086/460731>
- [18] Lincoln, Y. S., & Guba, E. G.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Sage. 1985.
- [19] K. J. An., S. K. Jang., Y. S. Park., Y. H. Son., J. H. Kim. A Story of Infants and children - a teacher interaction(pp. 19-22). Knowledge community. 2013.
- [20] Y. C. Kim. Qualitative Methodology. Seoul: Moon Eum Sa. 2006.
- [21] S. O.Hong., & S. H. Kim.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interactions with childre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6), 55-71. 2008.
- [20] J. S. Lee., & O. B.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17-35. 2002.
- [21] G. W.Kim., Y. H. Kim., & M. S. Choi. Theoretical study on social class culture and child development. Korean Culture Research Foundation, 89(2), 1-22. 1989.
- [22] Y. M. Lee. A study on a child's daily life, parenting, and a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23] Y. S. Song. & Y. J. Kim. A Study o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elf-Efficacy between Parenting Belief.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4), 107-117. 2007.
- [24] S. R. Han., & H. I. Hwang. A study on changes in teaching behavior by preschool teacher's reflective experience.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161-183. 2007.

박 지 선(Ji-Sun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원(문학석사)
- 2014년 2월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원(문학박사)
- 2005년 3월 ~ 2011년 12월 : 대전 화랑유치원 교사
- 2009년 9월 ~ 2015년 8월 : 배재대학교 강사
- 2015년 3월 ~ 2015년 8월 : 목원대학교 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실습, 교사교육